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安倍 晋三) 귀하
중의원 의장 오시마 타다모리(大島 理森) 귀하
참의원 의장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 正昭) 귀하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대한 긴급성명

아베정권이 내걸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전쟁으로 평화를 만든다」라는 주장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우리들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의 철회, 폐안을 요구합니다.

7 월 16 일,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아베 총리대신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의 가결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험난한 가운데 일본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적]을 상정하고, 새삼스럽게 [준비를 하면 걱정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입니다. 그것은, 평화적 외교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국헌법은, 파괴적인 전쟁에 대한 반성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이며 동시에, 전쟁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내외 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희생 위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특히 일본국헌법 제 9 조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의 포기]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 [교전권의 불인정]을 정하여, 국내외에서 평화헌법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평화국가로써 신뢰받고, 평화적 외교를 진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많은 헌법학자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명확히 일본국헌법 제 9 조에 위반합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복음 5:9) 라는, 성서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의 철회, 폐안을 요구합니다.

이상

2015 년 7 월 17 일

일본성공회	정의와평화위원회	위원장	주교 시부사와 이찌로(渋澤 一郎)
	청년위원회	위원장	사제 코바야시 사또시(小林 聡)
	인권문제담당자	담당주교	주교 무토 켄이찌(武藤 謙一)
	관구사무소	총주사	사제 야하기 신이찌(矢萩 新一)
	관구사무소	선교주사	타니가와 마코토(谷川 誠)